

니체 위버멘쉬 개념의 변형과 <물란>의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

오소정**

— 목 차 —

1. 들어가며
2. 니체의 도덕 개념과 위버멘쉬
3.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과 자기극복의 구조
 - 1) 자기초월적 인간으로서의 트랜스아이덴티티
 - 2) 트랜스아이덴티티 이행에 실패한 잠재적 주체
4. 이분법적 해석의 전복과 대중문화 속 자기극복의 변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디즈니 실사 영화 <물란>(2020)을 니체의 위버멘쉬 개념과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작품이 구성하는 정체성 전환의 구조와 그 철학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가 <물란>을 젠더 전복이나 문화적 재현의 문제로 해석해온 데 비해, 본 논문은 이를 자기긍정을 중심으로 한 존재론적 전환의 과정으로 재독해한다.

영화 속 주인공의 정체성 변화는 단순한 성별 이동이 아니라, 사회적 규범과의 긴장 속에서 자기 존재를 재정의하는 과정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전환은 니체가 제시한 자기극복의 사유와 부분적으로 접속하면서도, 대중문화 텍스트의 제약 속에서 변형된 형태로 재구성된다.

*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과제번호)(NRF-2021S1A5B5A17055148)

** 강원대학교 삼척교양교육센터 강사

따라서 본 연구는 <물란>을 니체적 위버멘쉬의 완전한 구현으로 동일시하기보다, 현대 대중문화가 자기극복과 주체성의 문제를 어떠한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조직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읽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이 정체성의 과정성과 수행성을 드러내는 하나의 서사적 장치로 기능함을 밝히고자 한다.

키워드 : 니체, 자기극복,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 정체성 전환, <물란>

1. 들어가며

본 연구는 디즈니 실사 영화 <물란>(2020)을 니체의 도덕 철학과 위버멘쉬(Übermensch)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현대 대중문화 콘텐츠가 재현하는 주체 형성의 양상을 고찰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은 주인공 물란의 정체성 변화 과정을 니체가 제시한 가치 전도와 자기 극복의 개념을 통해 해석하고, 이를 트랜스아이덴티티(trans-identity) 스토리텔링 구조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여성 서사 및 문화연구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고자 한다.

문학과 영화는 그것이 생산되는 시대적 맥락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으며, 특정 사회가 지닌 가치관과 이데올로기를 반영하는 동시에 이를 재구성한다. 2019년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전 세계의 박수를 받았고, 결은 조금 다르지만, 뒤이어 개봉된 미국 이민자 시선의 영화 <미나리>(2021), 재일조선인의 서사를 담아낸 Apple TV+ 오리지널 드라마 <파친코>에 대한 관심 역시 드높았다. 비주류(사회 주류가 되지 못한 대상)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지역적 종교적 민족적 시선으로 구획 지어 가리기보다 시야를 확장하고자 하는 취지의 흐름이 이어져 왔다.

이렇듯 글로벌 콘텐츠 환경에서는 민족, 젠더, 계층의 경계를 넘어서는 서사가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여성 주체의 재현 방식은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다. 디즈니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공주’ 서사를 해체하고 보다 능동적인 여성 주체를 전면에 배치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 왔다.

<물란>은 중국 고전 『목란사』가 원형인 만큼 중국 문학 분야에서도 여러 연구가 이루어져 왔음은 물론, 디즈니사의 결과물 이후 다양한 콘텐츠로 재창작되어 그에 따른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 기존 연구는 <물란>을 주로 중국 전통 서사의 변용, 동서양 문화 충돌, 혹은 젠더 정치학의 관점에서 분석해 왔다. 이영숙¹⁾은 목란 형상의 시대적 변용과 문화 수용연구에서 중국 역사의 흐름 속에 여성 이미지가 기술되어온 면모를 살폈다. 이지봉²⁾은 목란 영화 속의 영웅 이미지 변화를 라캉의 타자성에 초점 맞춰 고찰했다. 그 역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영웅 이미지를 다르게 적용했음을 확인하며, 서사가 여성 중심으로 변화됐음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인물의 내적 변화를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특히 주체가 어떻게 형성되고, 어떤 계기를 통해 기존 질서를 넘어서는가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애니메이션 <물란>(1998)은 주인공 곁에 주인공보다 직위가 높고 능력이 출중한 남성을 위치시킨다. 이 구조는 디즈니에 흔히 소비되던 ‘왕자(힘/권력 있는 남성)’와 일반 여성의 배치인데, 이는 기존 『목란사(木蘭辭)』에서 기술된 서사 구성에서 디즈니 형식으로의 변형이었다. 당시 동화에 기반을 둔 애니메이션은 왕자의 존재를 필수 요소로 인식하며 당연한 듯 여겼으며 재미를 더하는 설정으로 흔히 사용되었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제작한 <물란>(2020)에서는 권력자 남성 캐릭터가 삭제되어 있는데, 이러한 서사적 변화는 20여 년이 흐르며 여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었음을 보여준다. <겨울왕국>(2013), <모아나>(2016) 역시 주체적인 여성이 주인공인 서사로 여성 이미지 활용의 변화가 드러난다. 여성의 서사만이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그려졌던 백인 주인공 대신 유색인으로 설정하여 인종적 경계를 허무는 예도 <인어공주>(2023) 실사화 영화에 드러난다. <인어공주>의 인종 전환에 대한 갖가지 이슈가 있

1) 이영숙, 『木蘭 形象의 時代 變遷과 文化 受容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2) 이지봉, 『木蘭 이미지 변천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있으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형성되는 반대 의견에 대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인종 및 젠더의 기존 구성을 파훼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수렴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물란>(2020)은 단순한 애니메이션의 실사화가 아니라, 여성 주체를 둘러싼 가치 체계의 변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텍스트다. 기존 애니메이션 <물란>(1998)이 가족과 국가에 대한 헌신을 중심으로 서사를 전개했다면, 실사판은 주인공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인식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중심에 배치한다. 이는 여성 영웅을 ‘예외적 존재’로 그리던 기존 서사에서 벗어나, 주체 형성 자체를 문제 삼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오랜 시간 텍스트에 타자화되었던 여성 주체가 2020년대의 오늘날 어떻게 변형되어 기술되는지, 그리고 지역적 문화적 민족적 구획 없이 인물 자체에 대한 분석을 니체의 위버멘쉬 개념을 해석적 틀로 삼아 분석하며 정체성의 변화를 설명하는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 구조로 전유해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우리가 은연중에 스스로 타자화했던 관점의 전복을 시도하는 동시에, 트랜스아이덴티티에 니체의 사유를 접목해 또 하나의 정체성 전환 구조를 제안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니체의 도덕 철학을 분석의 틀로 삼아, <물란>의 주인공이 기존 규범을 거부하고 새로운 가치 체계를 창출하는 과정을 위버멘쉬 개념을 통해 해석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정체성 변화를 트랜스아이덴티티 개념으로 구조화함으로써, 현대 콘텐츠가 제시하는 주체 형성 방식의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니체의 도덕 개념과 위버멘쉬

니체에게 도덕은 ‘전복되어야 할 것’³⁾으로 규정된다. 니체의 철학에서 도덕은 명백한 가치 체계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힘의 산물이다. 그는 『도

3) Friedrich Nietzsche, 홍성광 옮김, 『도덕의 계보학』, 연암서가, 2011.

덕의 계보학』에서 기존의 선(善)과 악(惡)의 구분이 보편적 진리가 아니라 특정 집단의 가치 전도 과정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밝히며, 도덕을 비판적으로 해체한다.⁴⁾ 니체에 따르면 전통적 도덕은 강자의 힘을 부정하고 약자의 생존 논리를 정당화하는 과정 속에서 구성되었다. 이때 형성된 도덕은 생의 충동과 힘을 억압하며, 인간을 순응적 존재로 길들인다고 비판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선과 악의 구분이 초월적 진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역사적 조건과 힘의 관계 속에서 형성된 결과임을 밝히며, 도덕을 비판한다.

이는 단순히 특정 도덕 규범이 아니라, 그러한 도덕이 인간의 존재 가능성을 제한한다. 그는 인간을 ‘극복되어야 할 무엇(etwas, das überwunden werden soll)’으로 규정하며, 현재의 인간을 하나의 경과적 존재로 이해하는 입장이고,⁵⁾ 이것은 곧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제시하는 위버멘쉬(Übermensch)로, 이러한 자기극복의 운동을 지향하는 형상이다. 즉, 위버멘쉬는 기존 도덕에 순응하는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조하는 존재이다.⁶⁾

이때 중요한 것은 ‘힘의 의지(Wille zur Macht)’와 ‘자기긍정’의 관계다. 힘의 의지는 타자를 지배하려는 폭력적 욕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확장하고 형성하려는 존재론적 충동이다. 니체가 강조하는 것은 외적 승리가 아니라 내적 전환이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자만이 가벼워질 수 있다’고 말하며, 자기 부정과 원한에 사로잡힌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긍정하는 존재를 지향한다.⁷⁾ 이러한 맥락에서 ‘Amor fati(운명애)’는 위버멘쉬의 핵심 조건으로 이해될 수 있다. 자신의 조건과 한계를 포함한 삶 전체를 긍정하는 태도는 자기극복의 토대가 된다.⁸⁾

반대로 니체가 비판하는 인간형은 ‘르상티망(ressentiment)’에 사로잡힌 존

4) 위의 책

5) Friedrich Nietzsche, 김인순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열린책들, 2015.

6) 위의 책

7) 위의 책

8) 김주희, 「니체에게서 삶의 긍정 및 구원과 위버멘쉬」, 『철학연구』, 131권, 2014.

재다. 르상티망은 직접적으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자가 내면에 축적한 원한이 가치 판단의 기준으로 전도되는 심리적 작용을 가리킨다.⁹⁾ 이러한 인간은 자신의 결핍을 인정하는 대신, 외부를 비난하고 기존 질서를 도덕적으로 재구성함으로써 자신을 정당화한다. 『차라투스트라』에 등장하는 ‘말인(der letzte Mensch)’은 이러한 태도의 극단적 형상이다.¹⁰⁾ 말인은 위험과 창조를 회피하고 안락과 안전을 추구하며, 자기극복의 가능성을 포기한 인간형이다. 그는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보다 이미 주어진 질서 안에서 소극적으로 안주한다.

중요한 점은 위버멘쉬가 초월적 영웅이나 도덕적 완성자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는 공동체의 질서를 회복하는 인물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며 새로운 가치의 지평을 여는 존재이다.¹¹⁾ 따라서 위버멘쉬는 단순히 강하거나 능력이 뛰어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긍정하고 스스로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자이다. 여기서 자기극복은 사회적 인정의 획득이 아니라, 자기 내부에서의 전환으로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니체의 사유는 현대 대중문화 텍스트를 읽는 데 있어 유의미한 분석 틀을 제공한다. 특히 기존 질서 속에서 규정된 정체성을 해체하고 새로운 존재 방식을 모색하는 서사는, 자기극복과 가치 창조의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그 인물이 단순히 억압을 탈피하는 데 머무는지, 아니면 스스로의 삶을 긍정하며 새로운 가치 지평을 창출하는가 하는 점이다. 이 구분은 영웅 서사와 위버멘쉬적 형상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된다.

영화 <물란>의 주인공은 단순한 국가주의적 영웅이나 젠더 규범의 전복자로 환원되기 어렵다. 물란은 전통적 질서 속에서 부여된 정체성을 일시적으로 수용하고 위장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은폐하는 방식으로는 존재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자각한다. 이 지점은 단순한 역할 수행의 차원을 넘어,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9) 앞의 책, Friedrich Nietzsche, 2011.

10) 앞의 책, Friedrich Nietzsche, 2015.

11) 홍사연, 「니체의 인과 비판과 주체의 문제- 기원주의적 요소를 통한 ‘힘에의 의지’의 비인과성 고찰」, 『니체연구』 제17집, 2010.

다만 본 연구는 물란을 니체적 의미의 위버멘쉬로 동일시하고자 하지 않는다. 영화는 여전히 국가 질서의 회복과 황제 권위의 재확인을 서사의 결말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니체가 비판한 집단적 가치 체계와 긴장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란의 선택과 전환은 자기극복의 형상에 접근하는 장면으로 해석될 가능성을 지닌다. 즉 그녀는 외부의 승인에 의존하기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스스로 드러내고 감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이러한 점에서 니체가 말한 자기긍정의 윤리와 부분적으로 조응한다.

반면, 작품 속 마녀 캐릭터는 유사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권력의 인정에 자신의 힘을 위탁한다는 점에서 르상티망적 구조와 가까운 인물로 읽힐 수 있다. 그녀의 힘은 자기 창조로 이어지지 못하고 타자의 질서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대비는 위버멘쉬가 단순한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태도의 문제임을 드러낸다.

니체가 말하는 자기극복은 단일한 본질의 회복이 아니라, 끊임없는 생성과 재구성의 운동이다. 인간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Becoming)’이며, 위버멘쉬 역시 도달된 종착점이라기보다 지속적인 자기 초월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¹²⁾ 이러한 ‘되어감’의 논리는 고정된 정체성을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현대 정체성 이론과 접점을 형성한다.¹³⁾

특히 임대근이 논의한 트랜스아이덴티티 개념은 정체성을 고정된 실체가 아니라 서사적 변환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함을 강조한다.¹⁴⁾ 이는 니체가 인간을 극복의 과정 속에 놓인 존재로 이해한 관점과 구조적 유사성을 갖는다. 따라서 위버멘쉬 개념은 초월적 영웅의 형상이라기보다, 정체성의 생성과 전환을 사유하는 하나의 철학적 틀로 재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물란>은 니체적 위버멘쉬를 완전히 구현한 텍스트라기보다는, 자

12) 앞의 책, Friedrich Nietzsche, 2015

13) Oh Sojeong “Trans-boundary and Trans-identity: *Pachinko*”,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LITERATURE 8(1), 2024.

14) 임대근, 「‘트랜스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유형 -캐릭터, 스토리텔링, 담론」, 『외국문학연구』 제62호, 외국문학연구소, 2016.

기극복의 가능성과 그 실패 가능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서사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다음 장에서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구조와 결합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3.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과 자기극복의 구조

트랜스아이덴티티(trans-identity) 스토리텔링은 인물의 정체성을 고정된 속성으로 전제하기보다, 서사 속에서 정체성이 전환·재구성되는 과정 자체를 구조화하려는 이론적 시도다. 임대근은 트랜스아이덴티티를 ‘정체성 전환’으로 번역 가능하다고 전제하면서도, ‘트랜스’ 담론이 지닌 횡단·초월의 사유를 호출하기 위해 해당 용어를 유지한다고 설명한다.¹⁵⁾ 이때의 전환은 사건발생으로의 ‘변신’이 아니라, 인물이 기존 분류 체계(성별·계급·민족·규범 등)와 맺는 관계가 재배열되면서 주체가 재구성되는 내적인 움직임이라는 점이다.

이종현 역시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을 정체성 재현의 서사 양식으로 정리하며, ‘차이’가 억압되는 현실 조건 속에서 인물이 자신의 내면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동시에 사회적 체계와의 ‘절합(articulation)’을 수행하는 방식에 주목한다.¹⁶⁾ 이 논의는 스투어트 홀(Stuart Hall)이 문화적 정체성을 고정된 기원으로 보기보다, 역사적·담론적 조건 속에서 끊임없이 구성되는 것으로 파악한 관점과도 호응한다.¹⁷⁾ 즉 트랜스아이덴티티는 ‘정체성 이동’ 그 자체가 아니라, 차이가 표지되는 방식과 그 차이가 사회적으로 의미화되는 방식이 바뀌는 담론적 재구성의 과정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 관점에서 <물란>의 핵심은 ‘여성이 남성으로 변장했다’는 표면적 설정

15) 임대근, 위의 글, 2016.

16) 이종현,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재현 양식 연구」, 『영화연구』 98, 2023.

17) Stuart Hall, “Cultural Identity and Diaspora”, in *Selected Writings on Race and Difference* (ed. Jonathan Rutherford), 1990.

이 아니라, 물란이 ‘규범의 요구(여성성)’ - ‘위장의 전략(남성 수행)’ - ‘자기 노출의 결단(진실의 수행)’ 을 거치며 자기 자신을 재정의하는 전환 구조에 있다. 다시 말해 남장은 도착점이 아니라, 기존 규범 질서에 진입하기 위한 임시적 통로이며, 전환의 실질은 ‘남성이 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에 이르는 방향으로 서사가 재배열된다. 이 지점에서 트랜스아이덴티티는 성별 범주에만 고정되지 않고, 정체성의 층위(개인적 진실/사회적 승인/제도적 규범)의 관계가 재구성되는 존재론적 변환으로 확장된다.

<물란>에서 당시 딸의 미덕은 좋은 집안에 시집가는 것이고, 물란의 대담과 용맹은 여성이 갖추어야 할 조건과는 거리가 먼 시대였다. 마을 사람들 또한 그런 그녀를 탐탁지 않아 했으며, 물란에게 어릴 적부터 살아온 마을은 자신을 옥죄는 판옵티콘과 같은 곳으로¹⁸⁾ 물란이 말을 타고 초원을 달리는 순간만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듯 보였다.



그림 1 사방이 갇힌 공간으로 만들어진 토루

물란은 화준(Hua Jun)이라는 남자로 가장하여 텅용(Tung Yong) 장군의 휘하의 신병으로 스스로를 단련하고 유연(Rouran)족과의 싸움에 출전한다. 물

18) 서사의 배경이 당나라 시대로 묘사되에도 불구하고 작중에 그려진 물란의 집인 토루는 훨씬 후대인 12세기 남방에 등장한 가옥 형태로 묘사한 지점은, 디즈니가 중국문화의 고증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영상화했다는 논란을 빚었다.

란은 교전 중 유연족의 마녀를 마주하는데, 그는 물란의 정체를 꿰뚫어 보고 '진실을 감추고 있다'며 물란을 추궁하지만, 끝까지 진실된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는 물란에게 그렇다면 '거짓인 모습대로 죽게 될 것이다'라며 물란의 심장에 표창을 던진다. 물란은 여자임을 감추고자 착용했던 두꺼운 가죽 봉대가 표창을 막아 죽지 않았고, 마녀의 말대로 남자인 척을 하던 자신이 꾸며낸 화준을 깨고 검에 새겨진 진(眞)의 의미를 깨닫게 되며 본래 자신의 모습으로 다시 전쟁터로 향한다.



그림 2 마녀(仙娘)에게 표창을 맞고 깨어난 후 불사조를 만남



그림 3 물란은 검에 새겨진 진(眞)의 의미를 깨닫게 됨

그녀에게 ‘화준’은 자신을 숨기는 또다른 토루였으며, 남장을 통해 무리에 소속되어 자신의 세계를 파괴하여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영역이 아니었다. 그는 그 모순을 깨닫고 스스로 만들어낸 허물을 벗어던진다.¹⁹⁾

다만 이러한 전환을 곧바로 ‘니체적 위버멘쉬의 완전한 구현’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아니다. 니체의 위버멘쉬는 단순한 능력치나 사회적 성공이 아니라, 기존 가치 체계를 전복하면서 스스로 의미를 창출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국가 질서 회복(황제/제국의 복원)을 결말로 삼는 영화의 이데올로기와 긴장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물란의 전환은, 타자의 기준에 따라 정체성을 은폐·조정하던 상태에서 벗어나 자기 노출과 책임을 선택하는 결단으로 제시되며, 이는 니체가 말한 자기긍정과 자기극복의 윤리와 ‘부분적으로’ 조응한다.²⁰⁾ 즉 본 연구가 포착해야 할 것은 ‘물란=위버멘쉬’의 등치가 아니라, 대중문화 텍스트가 위버멘쉬의 사유를 어떻게 변형·조정된 형태로 호출하고 있는가라는 지점이다.

1) 자기초월적 인간으로서의 트랜스아이덴티티

<물란>에서 물란은 트랜스아이덴티 브릿지 위에 자신의 진정한 행복, 혹은 자아를 찾기 위해 수행하는 인간이다. <물란>의 트랜스아이덴티티는 단순히

19) 자아(ego)는 자신의 외부환경과 자신을 인식하는 사회적 자아이다. 자아와 비슷한 존재가 ‘자기(Selbst)’이다. 이것은 통제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본질적인 내면의 무의식이다. 즉 내면의 자기이다. 우리는 이러한 자기를 잘 돌보아야만 현실에 힘든 삶을 극복할 수 있다. ‘너는 너 자신이 되어야만 하나다.’는 전통 형이상학과 종교 그리고 도덕에 대한 니체의 비판 속에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철학적 시도는 자유정신, 신의 죽음, 위버멘쉬, 영원회귀와 운명에 등의 대표적 개념이다. 니체의 철학에 등장하는 욕구, 욕망, 충동, 그리고 정동은 그가 자신의 철학적 시도를 위해 실마리로 삼았던 몸의 현상들로서 위의 철학적 명제를 증명하는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으로서의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정념이 억압된 상태에서는 인간은 결코 자신의 삶에 주인으로서 참여하는 고유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다. 이상범, 『니체, 정동과 건강: 감정의 자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든다』, 한국학술정보, 2020, 87쪽.

20) 김주휘, 앞의 글, 2014.

여성의 남장이나 성별 위장의 문제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본 작품에서 남장은 출발점에 불과하며, 물란의 정체성 변화는 '남성이 되기'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에 이르는 과정으로 전개된다. 다시 말해, 물란에게 있어 트랜스아이덴티티란 성별의 이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며, 이는 니체가 말한 위버멘쉬의 자기긍정 개념과 깊이 연결된다.

영화 초반부에서 물란은 가부장적 가족 질서와 국가가 요구하는 여성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부적합한 존재로 위치 지어진다. 그녀는 좋은 딸도, 이상적인 여성도 되지 못하는 인물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존재를 감추는 선택, 즉 남장을 감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 남장은 궁극적인 정체성의 도착점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부정한 채 타자의 기준에 맞추려는 임시적 전략에 가깝다. 영화는 이 과정을 통해 '숨김'과 '위장'이 결코 진정한 주체성을 보장하지 못함을 드러낸다.

중요한 전환점은 물란이 더 이상 자신을 숨길 수 없으며, 또한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에 발생한다. 그녀는 남성으로서의 역할 수행이 아닌, 여성인 자기 자신으로서 모든 과업을 감당하겠다는 선택을 내린다.

검에 새겨진 '진(眞)'이라는 글자를 응시하는 장면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정체성의 층위가 재정렬되는 순간이다. '진'은 사회적 진실이나 생물학적 성별을 가리키기보다, 자기 존재를 숨기지 않는 태도를 표상한다. 이 순간 물란은 위장이 더 이상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며, 오히려 자신을 분열시키고 있음을 인식한다.

이 지점은 니체가 말한 자기긍정과 부분적으로 접속한다. 자기긍정은 외부로부터 승인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을 자신이 책임지는 태도를 의미한다. 물란은 능력을 숨기는 전략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을 드러내는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한다. 이 단계는 트랜스아이덴티티의 관점에서 보면, 정체성이 이동하는 순간이 아니라 정체성의 자기인식이 심화되는 단계이다. 즉, 전환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방향이 바뀌는 지점이다. 이때 물란은 더 이상 타인의 기

대나 규범에 의해 정의되지 않고, 자신의 선택과 실천을 통해 스스로를 정의하는 존재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화는 물란이 전투에서 동료를 구하고 국가를 지키는 과정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 그녀는 남성의 힘을 모방하지 않으며, 여성성을 부정하지도 않는다. 오히려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를 구함으로써, 기존 질서가 설정한 ‘가능성의 한계’를 넘어선다. 이 지점에서 물란의 주체성은 단순한 영웅 서사를 넘어, 자기 극복을 통해 스스로의 가치를 창조하는 위버멘쉬적 주체로 읽힐 수 있다.

따라서 <물란>에서의 트랜스아이덴티티는 성별 경계를 넘는 사건이 아니라, 자기 부정에서 자기 긍정으로 이행하는 존재론적 변환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니체가 말한 위버멘쉬가 단지 강한 존재가 아니라, 자기 삶을 스스로 긍정하고 책임지는 존재라는 점과 정확히 조응한다. 물란은 남장이 아닌 자기 긍정을 통해 위버멘쉬로 나아가며, 이 과정에서 트랜스아이덴티티는 정체성의 혼란이 아니라 주체 형성의 핵심 동력으로 기능한다.

2) 트랜스아이덴티티 이행에 실패한 잠재적 주체

물란은 자기긍정을 통해 트랜스아이덴티티의 전환을 수행한 주체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니체적 위버멘쉬의 완전한 이행으로 단정하지 않는다. 물란과 유사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위버멘쉬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물로서 ‘마녀’ 캐릭터를 병치함으로써, 자기초월이 결코 자동적으로 성취되지 않음을 드러낸다.

또한 마녀는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자신의 힘을 외부 권력의 승인에 위탁한다는 점에서 ‘자기극복의 실패’라는 방향성을 드러낸다. 이는 니체가 르상티망을 통해 설명한 반동적 주체 형상—자기 삶을 긍정적으로 창출하기보다 원한과 승인 욕망으로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과 해석적 접점을 갖는다. 중요한 것은 마녀가 ‘악’으로 단순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녀는 물란과의 대

면을 통해 자기 길의 한계를 인식하고, 최소한 파괴의 궤도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수행한다. 따라서 마녀는 완전한 타락이라기보다, 전환의 문턱에서 멈춘 미완의 되기(becoming)로 읽힐 수 있으며, 이로써 영화는 트랜스아이덴티티 전환이 성공/실패의 단선적 도식이 아니라, 조건·선택·승인의 정치가 교차하는 스펙트럼임을 드러낸다.

마녀는 물란과 마찬가지로 비범한 능력을 지닌 존재이며, 남성 중심의 질서 속에서 배제되고 타자화된 인물이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의 힘을 긍정하는 대신, 그것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외부 권력에 스스로를 종속시킨다. 그녀의 능력은 스스로를 실현하는 수단이 아니라, 남성 권력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하며, 그 결과 그녀의 정체성은 타인의 욕망 속에서 소모되는 형태로 고정된다.

이 지점에서 마녀는 니체가 비판한 ‘반동적 인간’ 혹은 ‘자기부정적 주체’의 전형을 보여준다. 니체에 따르면 위버멘쉬는 자신의 운명과 힘을 긍정하는 존재이지만, 마녀의 능력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과 외부 권력에 활용된다. 그녀는 자신의 힘을 통해 전쟁을 일으키는 남성 권력자를 돕고, 그로부터 ‘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국가’와 ‘자신이 속할 수 있는 질서’를 약속받는다. 이때 그녀의 선택은 강요라기보다 스스로 내린 결정에 가깝지만, 그 결정은 어디까지나 타자의 승인에 의존한 것이다. 즉,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긍정하지만, 그 긍정을 자기 내부에서 완결하지 못한 채 외부 권력에 위탁한다. 다시 말해 그녀는 자기극복에 실패한 채, 스스로를 소외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러한 태도는 곧 자기파괴로 귀결되며, 그녀의 힘은 창조가 아닌 파괴와 소모의 형태로만 발현된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영화가 이 인물을 단순한 악역으로 고정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마녀는 물란과의 대면을 통해, 자신과 동일한 능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선택을 하는 존재를 목격하게 된다. 특히 물란이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고, 여성으로서 자신의 힘을 드러낸 채 공동체의 인정을 획득하는 장면은 마녀에게 결정적인 전환점으로 작용한다. 이는 곧 타자의 실천

을 통해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는 계기이자, 자신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게 만드는 순간이다.

이 과정에서 마녀는 위버멘쉬에 도달하지는 못하지만, 동시에 완전한 악으로도 남지 않는다. 그녀는 끝내 자기 긍정에 이르지 못했으나, 최소한 자기 파괴의 궤도에서 벗어나 타인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주체로 변화한다. 이는 니체적 의미에서의 ‘실패한 위버멘쉬’이자, ‘되기(becoming)의 과정에서 멈춘 존재’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그녀는 초월의 가능성을 보았으나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지 못한 인물이다.

이러한 대비 구조는 <물란>의 서사를 단순한 영웅 서사에서 벗어나게 만든다. 물란과 마녀는 동일한 조건에서 출발했지만, 서로 다른 선택을 통해 상이한 존재론적 위치에 도달한다. 물란이 자기긍정을 통해 위버멘쉬적 자기극복의 가능성에 접근한 주체라면, 마녀는 그 문턱에서 멈춘 채 자기 부정의 흔적을 남긴 존재이다. 이 대비는 위버멘쉬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떻게 긍정하고 책임지는가의 문제임을 분명히 드러낸다.

결국 <물란>은 위버멘쉬를 단일한 영웅 형상으로 제시하지 않고, 도달할 수도,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가능성의 스펙트럼으로 제시한다. 마녀의 서사는 이 가능성의 실패를 통해 오히려 물란의 선택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며, 트랜스아이덴티티가 단순한 정체성의 이동이 아니라, 자기 긍정을 향한 윤리적 결단임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4. 이분법적 해석의 전복과 대중문화 속 자기극복의 변형

본 연구는 <물란>(2020)을 니체의 위버멘쉬 개념과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본 작품이 단순한 여성 영웅 서사를 넘어 정체성의 전환 구조를 사유하는 텍스트임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물란의 서사를 ‘여성 대 남성’이라는 젠더 이분법의 전복으로만 해석하는

기존 접근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긍정을 통해 자기 존재를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재독해하였다.

<물란>은 표면적으로는 성별 규범을 전복하는 이야기로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영화의 핵심은 남성 수행의 성공 여부에 있지 않다. 오히려 작품은 위장-자각-노출이라는 변곡점을 통해, 정체성이 외부 규범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행과 선택을 통해 재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구조는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체성의 과정성’과 연결된다. 정체성은 본질의 회복이 아니라, 사회적 질서와의 관계 속에서 재배열되는 서사적 구성물이다. 이 점에서 물란의 전환은 단순한 성별 이동이 아니라, 자기 존재에 대한 책임적 태도로의 이행으로 이해될 수 있다.

니체의 위버멘쉬는 기존 가치 체계를 반복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가치를 창출하는 존재로 제시된다. 이러한 점에서 영화 속 물란을 완전한 니체적 위버멘쉬로 동일하게 놓지 않는다. 작품은 여전히 황제의 권위와 국가 질서의 회복을 서사의 종결점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는 니체가 비판한 집단 도덕과 긴장을 형성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란이 선택하는 ‘자기 노출’의 순간은 외부 승인 이전에 자기 존재를 긍정하는 태도로 해석될 여지를 남긴다. 그녀의 전환은 타자의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한 전략적 수행에서 벗어나, 자신의 조건을 감당하는 책임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자기극복의 윤리로 해석하며, 니체적 해석에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과정에 접목됨을 시사할 수 있다.

결국 <물란>은 현대 대중문화의 제약 속에서 위버멘쉬의 가능성이 어떠한 방식으로 변형·조정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디즈니 실사 영화가 단순한 이데올로기 재생산의 도구를 넘어, 오늘날 주체성·젠더·자기초월의 문제를 사유하게 만드는 장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물란>은 중국 고전 서사를 원형으로 삼으면서도, 2020년대 글로벌 콘텐츠

츠 환경 속에서 재구성된 결과물이다. 본 연구는 문화적 재현의 정확성이나 역사적 고증 여부를 판단하기보다, 해당 텍스트가 동시대적 맥락에서 어떠한 정체성 담론을 구성하는지에 주목하였다.

대중문화는 단순한 이데올로기 재생산 장치가 아니라, 기존 가치 체계를 재배열하고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하는 장이 될 수 있다. 니체의 도덕 비판이 전통적 가치의 자명성을 의심하는 데서 출발하듯, <물란>은 젠더와 주체성에 관한 고정 관념을 재검토하게 만드는 계기를 제공한다.

參考文獻

1) 미디어 자료

디즈니 영화 <물란>, 2020

디즈니 애니메이션 <물란>, 1998

2) 연구 자료

戴錦華, 『犹在鏡中: 戴錦華訪談錄』, 知識出版社, 1999.

Edward Said, Danial Barenboim, 장영준 옮김, 『평행과 역설』, 생각의 나무, 2003.

Friedrich Nietzsche, 김미기 옮김,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세상, 2001.

Friedrich Nietzsche, 홍성광 옮김, 『도덕의 계보학』, 연암서가, 2011.

Friedrich Nietzsche, 김인순 옮김,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열린책들, 2015.

Friedrich Nietzsche, 박찬국 옮김, 『선악의 저편』, 아카넷, 2018.

권재용, 「스토리텔링 내부의 캐릭터 변용에 관한 연구」, 『만화애니메이션연구』, 한국만화애니메이션학회, 2011.

김세익, 『경험서사이론으로서의 트랜스아이덴티티 연구: 마블시네마틱유니버스(MCU)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김주희, 「니체에게서 삶의 긍정 및 구원과 위버멘쉬」, 『철학연구』, 131권, 2014.

Oh Sojeong “Trans-boundary and Trans-identity: *Pachinko*”, *INTERDISCIPLINARY STUDIES OF LITERATURE* 8(1), 2024.

이상범, 『니체, 정동과 건강: 감정의 자유를 통해 건강한 삶을 만들다』, 한국학술정보, 2020,

이영숙, 『木蘭 形象의 時代 變遷과 文化 受容 研究』,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3.

이종현, 「트랜스아이덴티티 스토리텔링의 재현 양식 연구」, 『영화연구』 98, 2023.

- 이지봉, 『木蘭 이미지 변천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 임대근, 「문화콘텐츠 개념 재론(再論)」, 『글로벌컬처의문화연구』, 글로벌컬처의산업 연구센터, 2014.
- 임대근, 「'트랜스 아이덴티티'의 개념과 유형 -캐릭터, 스토리텔링, 담론」, 『외국 문학연구』 제62호, 외국문학연구소, 2016.
- 임대근, 「문화콘텐츠비평: 콘텐츠 액티비즘의 가능성」, 『인문콘텐츠』, 인문콘텐츠학회, 2019.
- Judith Butler, *Gender Trouble: Feminism and the Subversion of Identity*, Routledge, 1990.
- 홍사연, 「니체의 인과 비판과 주체의 문제- 기연주의적 요소를 통한 '힘에의 의지'의 비인과성 고찰」, 『니체연구』 제17집, 2010.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Nietzsche's *Übermensch* in *Mulan*. A Study of Trans-Identity Storytelling

Oh, So Jeong

This study examines Disney's live-action film *Mulan* (2020) through the lens of Nietzsche's concept of the *Übermensch* and the framework of trans-identity, in order to explore the philosophical implications of the protagonist's transformation. Rather than interpreting *Mulan* as a simple feminist hero narrative or a story of gender subversion, this paper reads the film as a process of self-transcendence achieved through self-affirmation. Drawing on Nietzsche's critique of morality and his concept of the *Übermensch*, the study analyzes the characters' identity transformations by applying the concept of trans-identity storytelling. The analysis suggests that *Mulan* can be read as partially engaging with Nietzsche's idea of the *Übermensch* by affirming her own existence and making autonomous choices. In contrast, the witch character, despite possessing similar abilities, fails to achieve self-transcendence because she entrusts her power to external authority in search of recognition. This contrast demonstrates that the *Übermensch* is not defined by strength or capability, but by an ethical decision grounded in self-affirmation. Through this analysis, the study argues that *Mulan* reconstructs contemporary discussions of subjectivity, gender, and self-transcendence within popular culture, and illuminates its broader philosophical implications.

Key words : Nietzsche, self-overcoming, trans-identity storytelling, identity transformation, *Mulan*

투 고 일 : 2026. 1. 10. / 심 사 일 : 2026. 1. 15. ~ 2026. 2. 15. / 게재확정일 : 2026. 2. 20.